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4)

‘평생 부처님 말씀 보겠다’... 50년 강의

대강백 각성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 1938년 전남 장성의 한학자 집안에 태어나 8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사서삼경을 배웠다. 1955년 18세에 선사이자 율사이신 해인사 백련암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3세 약관의 나이로 은해사에서 강주로 활동했으며, 관음, 탄허, 운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했다. 이후 50년 간 수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능가경>, <수승업삼매경>, <대도직지>, <유식론 강의> 등 20여 저서가 있다. 현재 부산 화엄사 회주 소임을 맡고 있으며, 일흔이 넘은 세수에도 후진양성을 위한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심 생활의 일주일은 마치 성(聖)과 속(俗)을 나누는 경계면 같다. 서울 종로 한 복판에 우뚝 서 있는 조계사 일주문은 더욱 그렇다. 그 경계 앞에서 <화엄경> 강론의 대강백으로 알려진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대강백이라는 기대와 선입견이 앞서일까. 설레면서도 초조했다. “무슨 말을,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오전 9시, 약속 시간에 맞춰 각성 스님이 도착했다. 단출했다. 이제는 흔하디 흔한 자가용을 타지도 않았고, 시봉하는 시자도 없었다. 모시옷 한벌에 강의 자료와 가사가 든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먼저 알아본 스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십니까.”

인사를 건네는 눈은 빛났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함께 조계사 경내를 걸을 때에는 활기를 느꼈다. 올곧은 교학자의 품모는 스님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자연스레 묻어났다.

아직도 나는 현역입니다. 옮긴 자리, 먼저 “시봉하는 시자가 없으시나”는 속인의 질문을 던졌다. 스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없어요. 그런 게 모두 돈이고 경비입니다. 부처님 시주 돈, 허투루 쓸 수 있습니까. 아직은 필요없어요.”

염려의 질문이 무색할 만큼 찌렁찌렁한 답변이다. 스님의 세수는 올해 75세. 스님은 지금도 부산과 서울 오가며 학인 스님과 불자들을 제정한다. 매월 1, 3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종로 5가에 있는 보명선원에서 <대도직지> 강의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동국대 학명 세미나실에서 학인들을 대상으로 <열반경>을 강의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열반경>강의는 현재 9권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36권을 더 강독해야 한다. 젊은 사람에게는 녹록치 않은 강의 일정이다. “몸은 많이 고되고 힘들지요. 그래도 요정이 들어왔고,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열반경>강의를 마치면 이제 책임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空手來空手去’ 무엇이 아까운가. 최근 각성 스님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전남 장성의 본인 생가와 인근 부지 6611.57㎡를 매입해 ‘수선사(修禪寺)’라는 사찰을 창건함과 동시에 모든 소유권 일체를 조계종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사찰 불사 비용도 스님의 강의, 법문, 출판 등으로 모은 사재를 전부 보시해 이뤄졌다. 지난 7월 14일에는 소속 교구본사인 제16교구본사 교운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사 창건 범회를 성대히 봉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평생의 사재까지 털어가며 장성 자신의 생가에 사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불교 불모지인 장성에 사찰이 꼭 하나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장성은 스님의 고조부대 아버지까지 4대가 살았던 곳이다.

“수선사 인근은 제 고조부부터 아버지까지 삶을

일궈 오신 곳입니다. 이곳에 사찰을 세운 것은 지역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장성에는 여법한 사찰이 거의 없습니다. 50리 밖에 백양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효 스님도 자장 율사도 자신의 생가를 절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왕릉에는 능침사찰이 있었어요. 저 같은 서민들도 생가에 절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사재를 보시해 만들어진 사찰이지만, 스님은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미 종단의 공찰로 등록된 상황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다. 지금 주석처인 화엄사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두 종단에 전부 증여할 계획이다.

운허·관음·탄허 스님 문하에서 연찬 <화엄경> 강론의 대가로 알려져 <범부가 부처되는 과정 상세히 묘사>

불자위한 추천 경전은 ‘능엄경’ ‘정토’ 길잡이 ‘아미타경’도 읽었으면

“염불은 쉽게 할 수 있는 귀한 수행법 들 부처님 떠올리는 마음이 곧 염불”

생가·부지매입 수선사 창건 공찰등록... 현 주석처도 곧 종단에

“승려 개인이 사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단 공찰로 운영하는 게 삼보정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종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크게 보면 우주만유가 모두 내 것이고, 작게 보면 내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집착심을 갖겠습니까?”

공자를 놓고 부처님 말씀을 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상(像)이 없었다. 딱딱한 이야기였지만, 그 심지는 굽었다.

각성 스님은 출가 전 유학을 공부했다. 스님의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모두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였다. 스님 역시 출가 전 사서삼경을 통독했다.

하지만 6.25전쟁 이후 고향이 폐허가 되고, 공부할 겨를이 없어지자 스님은 백양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 읽은 책에서 울곡 이이 선생이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안 있어 같이 간 친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절을 떠났다. 스님 역시 친구와 함께 절을 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은 해인사 백련암으로 행하고 있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습니다. 출가하며 ‘평생 부처님 말씀을 보겠다’고 발심했지요. 그래도 경전 보다는 참선을 통해 일대사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4.19이후 벌어진 정화운동으로 은해사에서 경전을 가르치는 강주 소임을 봐야했습니다. 도반 스님이 은해사 주지 소임을 맡았는데 대처승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법한 강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강주가 공부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경전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스님의 노력이 통해서 일까. 은해사 강원에는 50-60명의 학인이 모여 공부를 시작했고, 몇 달 안돼 대처승은 은해사를 떠났다. 이후 각성 스님은 당시 3대 강백이라 불리었던 관음, 탄허, 운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연찬했다. 탄허 스님이 역주한 <화엄경>, <화엄론>의 교정 작업도 스님이 진행했다. 또, <한글대장경>의 번역과 감수 작업을 10년 가량 했다. 출가 이후 스님은 오롯히 전태, 화엄, 유식부터 소송에서 대승까지 경전 공부에만 평생을 매진해 온 것이다.

수많은 경전들을 강독한 각성 스님은 대중에게는 <화엄경>강론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강백이 전하는 <화엄경> 요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말씀임없는 답변이 나왔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부처의 세계를 설명한 경전이 <화엄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의 재산과 살림살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십주, 심행, 심지품 등 <화엄경>은 부처가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처가 될 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명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무명 그 자체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바다 위 거품은 생겼다 사라집니다. 바다는 곧 마음이고, 거품은 번뇌망상입니다. 거품과 파도가 아닌 바다를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화엄경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 현각대사는 이 도리를 깨닫고 ‘무명실성즉불성 환화공신즉범성(無明實性即佛性, 幻化空身即法身)’이라는 증도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화엄경> 공부가 치열한 현대인의 삶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전 공부만이 가지는 해안이 열린다는 것이다.

“물방울은 약하지만 이를 하나로 모으면 균한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분리해 있는 게 우리 범부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큰 바다처럼 하나로 정신을 모을 수 있다면 사업이나 공부에서도 무한한 힘이 나올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면 이렇게 스스로의 자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 중앙원로위원장 대응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 중앙문화위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루, 살풀이)
-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 총무국장 관음 총무과장 청곡

- 이사장 해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 총무부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승 청운암)
- 규정부장 수연 범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 재무부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미)
- 감찰부장 서암 (부산 민덕 약수사)

- 총무원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 포교위원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 교육위원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 감사원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증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무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육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부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신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증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염불선원 건립이 마지막 발원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매월 1, 3주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에서 학인과 재가자를 위한 경전 강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동국대에서 진행하는 <염반경> 강의 모습

“교와 禪은 결코 둘이 아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선에 치중된 한국불교의 현실로 넘어갔다. 스님은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 ‘방하교의 참상선지(放下教義 參詳禪旨)’라 했습니다. ‘교를 잠시 내려 놓고 선의 종지를 구하라’는 뜻인데, 교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면 되겠습니까? 역대 조사들의 말씀들도 모두 경전에서 비롯했습니다. 탄허 스님은 경학을 풍시하는 종단 현실을 보고 ‘조계종은 무식으로 종지를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는 불교 대학도 생기고, 스님들 역시 많이 공부하는 편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렇다면 수 많은 경전 중 불자들에게 권하는 경전은 무엇이 있을까? 스님은 주저없이 <능엄경>을 꼽았다. 팔만 장경의 요체를 담은 것이 <능엄경>이라는 것이다. ‘소화염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능엄경>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불교 신화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각성 스님 역시 10권 분량의 <능엄경> 정해본을 저술하기도 했다.

“<능엄경>은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당시 왕명이 있었을 정도로 소중한 경전입니다. 인도 나란대 대학에 숨겨져 있었죠. 그것이 어렵게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능엄경>은 깨달음의 본성이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며, 세간의 만법이 모두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도 신앙을 실천(아미타경)도 좋은 경전입니다. 선으로 견성성불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말세 중생에게는 염불이 극락정토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만나는 수행법 ‘염불’

의외였다. 경학의 강박이 대중들의 수행법으로 염불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염불은 대중적이지만 한국불교 내에서 위치는 미약하다. 하지만 스님은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한다. 염불수행법은 <정토삼부경>, <무량수경>, <대집경>부터 <대승기신론>, <화엄경>까지 다양한 경전에 명시돼 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셔서 상·중·하 근기의 모든 중생에게 고루 설법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염불을 예로부터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자성선(自性禪)이라고도 하고, 또한 모든 삼매(三昧)의 왕이라 하여 보왕삼매(寶王三昧)라고도 했다.

“<화엄경> 십지품의 십지보살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수행이 염불입니다.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지, 하근기의 사람들이나 하는 낮은 수행법이 아닙니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염불 수행법도 소개했다.

“<관무량수경>은 16가지로 극락세계를 눈으로 보

듯이 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지요. 일반 범부들에게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명호하는 지명염불입니다. 화두는 의심이 안나면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불 수행은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명호를 소리 내 부르면 더욱 좋습니다. 늘 부처님을 떠올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그레서 스님의 마지막 서원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염불선원을 개원하는 것이다. 장성 수선사에 들어간 사제는 원래 염불선원 불사를 위해 모았던 재화였다. 하지만 스님이 생각하는 규모의 염불선원을 건립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고, 결국 불교 불모지인 고향 장성에 사찰을 짓게 된 것이다.

“염불선원은 내 마지막 원력이자 서원이죠. 종단 차원에서든 여법한 염불수행 전문도량이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네요. 물론 이생에서는 못다 이룰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꾸니다. 전국 불자들이 염불선원에 한 데 모여도, 일요일 응명정진하며 염불삼매에 드는 모습들을.”

이와 함께 스님은 한 가지 서원을 더 이야기 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 분별과 다툼이 없어지는 것이다.

조계사 대웅전의 염불소리와 한 여름 매미 울음이 조화롭다. 스님은 환희 웃었다. 함께 미소가 지어졌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거하게 취하네

난. 난은 글자의 모양으로 보아 동쪽 창문에 두어야 잘 자라는 식물임을 알 수 있다. 난은 심산유곡에 피기 때문에 둔세적이라는 말이 붙었다.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미덕을 지녀 인간세상에 옮겨지는 것을 지극히 꺼린다고 한다. 이러한 성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 옮겨놓고 보려고만 하니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이 들 뿐. 그래서 난초(蘭) 자를 만들 때 동쪽 창가에 놓고 사귀어 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다.

지난 2월에 받은 화분이 있다. 난 화분이다. 서재에 놓고 보면 사람의 고마움도 새기고 난의 속성을 음미하기도 한다. 깊은 골짜기에 살기에 유곡란이라 한다지. 문명의 찌꺼기 - TV·컴퓨터·책상·책·필기도구 등 - 속에 뒤섞여 있으려니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마음이 쓰여 늘상 미안한 생각이다.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여 여름 내내 사용하지 않으니 망정이지. 난이 안도의 숨을 쉬는 듯하다. 난생 처음 기상천외의 바람이 불어제끼는 날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쳤으리만.

작은 배려가 가뭇했던지 꽃이 피었다. 처음에 촉이 세 대 솟았다. 큰 놈 한 촉, 작은 놈 두 촉. 거기서 각각 네 꽃부리, 세 꽃부리씩, 도합 열 꽃부리가 되었다.

마치 사방세계에 공양을 올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도 표현하듯이. 점차 아랫대부터 위쪽으로 질서를 지키며 꽃을 피워 갔다. 난의 고고함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향기를 발산하는가. 거문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금강산 악사가 거문고 줄을 날같이 풀어 아무리 만지작 거려도 그 소리는 찾을 길 없다. 향기 또한 어느 우매한 사람이 분에서 꺼내어 뿌리를 유심히 살핀들 그윽한 향은 찾을 길이 막연하다. 규방에서 자란 아름다운 처녀나, 권세와 명성에 영합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사는 격이 높은 선비를 유곡란(幽谷蘭)에 비유 하던가.

향은 온 방을 장식하였다. 안다미로 넘치게. 특히 외출하고 왔을 때의 방향은 감동을 준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를 새삼 느낀다. 마디에서 한 화관을 완성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미루어 알 만하다. 줄기와 꽃부리 사이에는 바늘로 꿰어 놓았을지언정 물방울이 맺혀 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필연코 겪어야만 하는 진통일런지. 순차적으로 열 송이가 피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아도 그 때마다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지금은 가장 늦게 핀 꽃부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 단순히 물방울일까. 아니야.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산고의 눈물이겠지. 동물의 왕국에서 백수의 왕 사자는 토끼를 사냥하는 데도 큰 꼬끼리를 습격하듯이 힘을 쏟는 것을 보았다. 상대가 없는 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난의 모습에서 고개를 숙인다. 인간은 보여주기 위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봐주지 않으면 시들해 지기도 한다. 남이 알아 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군자의 기상을 빼닮은 난이여. 그대는 이 시대의 스승이요. 문명에 찌든 인간의 지표가 아닐까. 행운유수라는 운수남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연못가에도 난이 꽃을 피웠다. 연못의 크기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인 함지(咸池)는 아니지만, 나 혼자 흥겨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그만 연못이다.

난초의 산지로 유명한 복간성에서 진귀하게 여기는 최상의 품종이 진몽량(陳夢良)이다. 빛깔이 물과 같아 물에 넣으면 더더욱 앙상함을 이를 것만 같다. 어찌 혼자만이라. 개구리도 있고 소금쟁이도 있다. 개구리는 여름밤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도 하고, 소금쟁이는 물위를 달리는 스프린터이다. 긴 발만 있다고 물위를 달릴 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다. 몸이 가볍기 때문이라. 지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속박이 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망각한 듯하다. 몸무게가 나가는 인간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

군자의 기상 빼닮은 蘭 ‘행운유수’ 남자의 모습

하여 온갖 소란을 피운다. 자유령, 점령, 배령 등을 익히며. 테너에서 소프라노로 음폭을 높여가는 개구리, 소금쟁이도 난향에 취했는지 넓이 뛰기까지 하고 있다.

이따금 오르는 좀더란 이슬받이에 봉선화를 심었다. 어느 영혼인가 꽃을 감상하라고. 그리고 어느 생애선가 백반에 꽃잎을 넣고 짙어 아주까리 앞에 쌓아 물들였던 손가락도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아니라면 이승의 어느 나그네가 오고가는 방향을 잃고 혹시 이 길을 걷게 된다면 어린날의 추억에 잠시 머물러 보라는 뜻에서이기도 하다.

하기야 진짜 나그네는 오고 가는 쪽을 모른다고 한다. 자기 이름마저도 모른다. 생종하 처래 사향하처거라고 했다. 봉선화의 삭과(榲桲)는 익으면 터져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낼 것이고 ...

자연의 입술은 빨갛고 문명의 입술은 창백하다. 봉선화의 붉은 꽃부리는 자연의 입술임이 분명하다. 해변에 있는 몸짱들의 입술이 파래지는 것은 자연의 일탈 때문이다.

‘문을 잠그면 깊은 산속이요, 책을 읽으면 어디나 정토와 같다’고 한 당나라 시인 진계유의 노래를 음미하며 오늘도 난향에 거하게 취하러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평화·금금·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성지순례

고품격 여행상품
미얀마 성지순례
일 정 : 양곤 / 짜익티오 / 바간 / 헤호 7일 220만원
출발일 : 8월 20일, 9월 7일, 9월 15일 확정

- 중국 성지순례
 -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7일 135만원
 -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